

## 四象醫學과 難治性疾患

宋一炳 · 박계수

### Abstract

##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and Incurable Disease

Song Il-byung · Park Gae-su

\*Dept.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Kyung-Hee University

### 1. Objects of Research

This research is purposed to find methods of treatment on serious diseases, through summarizing etiology, classification and treatment on serious diseases proposed in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 2. Methods of Research

It was researched as bibliologically with Dong-mu's chief medical writings such as 'Dongyi Soose Bowon(東醫壽世保元)', 'Dongyi Soose Bowon Sasang Chobongyun(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

### 3. Results and Conclusions

1. The principle of treatment in the previous medicine is to treat each disease by 'Assisting-Good Qi' and 'Removig-Bad Qi'. but The principle of treatment in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is to manage incurable disease by helping 'Essential Qi of each constitution(體質正氣)'
2. Incurable disease is classified into a chronic disease by 'Nature(性氣)' and a acute disease by 'Emotion(情慾)'. Both diseases became serious through 'Noi-Ok(牢獄)' and 'Wi-Gyoung(危傾)'. A chronic disease is much in the middle years of life and become senile disease. A acute disease is much in the young years of life and make patients die young.
3. Prognoses of incurable disease are different from degree of Inherent vitality(命脈實數) and term of disease. The case in which Inherent vitality is exhausted is thought that is unable to treat.
4. The prevention of incurable disease is more important the treatment of one in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but if incurable disease is caught, Medicine(醫藥) and management(調養) must be used together for treatment of incurable disease. Medicine is more important in the level of 'Noi-Ok(牢獄)' and management is more important in the level of 'Wi-Gyoung(危傾)'.
5. Therefore, incurable disease should be treated by method that 'Essential Qi of each constitution(體質正氣)' is recovered and declination is removed through 'controlling mind(治心) and correcting Qi(正氣), so then the state of 'Golden mean(中庸)' is reached.

1) 慶熙大學校 韓醫科大學 四象體質科

교신저자 : 송일병, 주소) 서울 동대문구 회기동 경희의료원 사상체질과, Tel) 958-9232 E-mail) ibsong@khmc.or.kr

## I. 緒 論

기존의 證治醫學은 질병의 치료에서 '扶正祛邪'를 중요한 치료원칙으로 제시하고, 病症의 虛實을 파악하여 이에 따라 補法과 瀉法을 응용함으로써 疾病을 치료하였다. 이에 비하여 四象醫學은 儒學的 배경에서 나온 인간 중심의 醫學으로 인간의 자율성을 강조하였으며 인간을 心身 兩面에서 인식하였는데, 心身 중에서도 心을 강조하여 心火를 질병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인식하였고<sup>1)</sup> 心火를 조절하기 위해서는 욕심을 줄이고 知를 구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였으며<sup>2)</sup>, 癩病도 몸을 잘 조리하며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만족할 줄을 알면 치료할 수 있다<sup>3)</sup> 인식하였다. 이를 통하여 보면 四象醫學은 치료에서 心身에서의 '正己'를 중시하여 難治性 疾患의 치료도 非藥物的 正己와 藥物的 正己를 병용하면 가능하다고 인식하였으며 非藥物的 正己는 心에서의 '治心正氣'와 知行에서의 '知人正己'를 제시하였다. 또한 인간을 臟氣의 편차에 따라 네가지 체질로 분류하고, 치료에서는 각 체질별 偏小之臟의 本常之氣인 '命脈實數'·'體質正氣'를 회복하고 관리하여 각 체질에서 나타나는 偏差를 조절함으로써 '中庸'의 상태에 이르도록 하는 '中庸의 調節精神'을 치료 원칙으로 제시하였다. 醫學은 질병을 치료하고 예방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따라서 難治性 疾患에 해당하는

疾病을 치료하고 예방하는 방법을 밝혀가는 것은 醫學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중요한 목표가 된다. 東武公 또한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의 '癩病'이나 『東醫壽世保元·辛丑本·少陽人 泛論』에서의 '不可期必' 등의 개념을 제시하는 것 외에도 각종 저서에서 難治性 疾患의 특성, 원인과 치료 등에 관하여 여러 차례 언급하였다. 따라서 본고에서 저자는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 등의 東武公의 저서를 중심으로 四象醫學에서 제시하고 있는 難治性 疾患 認識, 原因과 特性, 治療에 관하여 고찰해 보겠다.

## II. 本 論

### 1. 難治性 疾患의 인식

東武公은 질병 인식에서 각 체질의 體質正氣를 중시하였는데, 이는 각 체질의 偏小之臟의 本常之氣를 의미하는 것으로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에서는 '命脈實數'라는 용어로도 설명하고 있다<sup>4)</sup>. 東武公은 이를 중심으로 질병을 분류하여 질병의吉凶과 壽의 長短을 결정할 수 있다고 인식하였는데<sup>5)</sup>. 우선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에서 命脈實數를 중심으로 病證을 분류한 내용<sup>6)</sup>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濟衆新編·五福論』

：“百病 生於心火 士人一日再食 農夫一日或三食 見事應變。不過用心火則無不得壽 禍福無不自己求之者而 壽夭無不自己求之。”

2) 『東武遺藁·教子平生箴』

：“寡慾力行，遇事求知，知多心活，慾多心傷。”

3)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藥方之第五統』

：“百病皆有限 有二三日病 有三四日病 有二三年之病 有十餘年之病，慎攝風寒 平心靜意 知足知止則雖是疴育之病豈無必愈道乎。”

4)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病變之第二統』

：“太陽人肝臟十分圓全而與肺相敵者 極完境人也。一半虧缺 而與肺讓倍者 極壞境人也 過此則死。以此推之 太陽人肝臟部一半爲命脈實數 他臟倣此。”

5)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病變之第二統』

：“蓋四十歲血氣之所充補命脈者半減也 故平人以四十歲所存命脈占病之吉凶 六十四歲血氣充補命脈者全減也 極壽人以六十四歲所存命脈占壽之長短。”

6)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病變之第二統』

：“臟部一半命脈實數平分八截，第一截 名曰神仙 度數言其最高也。第二截 名曰清朗 度數言精神清朗也。第三截 名曰快輕 度數言一身快輕也。第四截 名曰康寧 度數言百體康寧也。第五截 名曰外感 度數言

표 4. 命脈實數에 의한 질병분류

疾病分類	특성	治療原則	
神仙	其最高	건강 상태	極完境人
清朗	精神清朗		
快輕	一身快輕		
康寧	百體康寧		
外感	表氣外虧	輕病 不須言藥	平人
內傷	裏氣內損	重病 勿藥有喜. 調理先務 醫藥次之	
牢獄	其病如入獄	危病非藥不支. 醫藥先務 調理次之	極壞境人
危傾	其命遂危境	凶病 不當論藥.	

이상과 같은 命脈實數에 의한 질병의 분류에서는 命脈實數의 손상이 심하여 極壞境人에 이른 牢獄과 危傾이 難治性 疾患에 해당한다<sup>7)</sup>고 볼 수 있다. 이외에도 難治性 疾患에 관한 또 다른 개념은 '痼病'이다. 痼病은 한번 暴傷을 당하면 여러일에 걸쳐 회복이 어려운데 이러한 暴傷을 여러차례 겪으면 痼病이 형성되며<sup>8)</sup> 少年期에 痼病이 형성되면 병을 유지하기도 어렵고 잘 낫지 않는다<sup>9)</sup>고 인식하였다.

表氣外虧也. 第六截 名曰內傷 度數言裏氣內損也. 第七截 名曰牢獄 度數言其病如入獄也. 第八截 名曰危傾 度數言其命遂危境, 命脈之理微 忽難見 難見則難言 略分八截 者而明之 使難見者易見 難言者易言. 每一截亦各有初中終 度數八截又可分爲二十四截.”

- 7)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病變之第三統」  
：“凡人起居如常而猝然死者 病皆牢獄之命脈也. 二十前後之病 夭折最易, 四十前後之病 享壽實難.”
- 8)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病變之第三統」  
：“一日暴傷 百日難復 累次暴傷遂成痼病 可不戒哉 得痼病者以一周年占其病勢加減 由此而年年占其加減可也.”
- 9)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病變之第三統」  
：“少年痼病支難不愈 命脈在危傾初分者 忽一日嬰然 恭敬改過遷善 藥餌扶其正氣 調養培其真源 千辛萬苦 經歷病變 至中年四十命脈 稍復於內傷度數者 極善調養則九十壽非難 如此者其壽必自上天而降也.”

이상과 같은 難治性 疾患도 질병의 양상에 따라 예후가 차이를 보이는데, 우선 발병 양상에 따라 보면 性氣의해 완만히 발병한 만성병의 경우는 예후가 양호하고, 情慾에 의해 급격히 발병한 급성병은 예후가 불량하다<sup>10)</sup>. 다음으로 발병 부위와 전변 양상에 따른 예후의 차이를 보면 臟部의 液이 손상을 입은 경우나<sup>11)</sup>, 질병이 淺部에서 深部로 전변하는 경우, 輕病에서 重病으로 질병이 전변하는 경우가 예후가 불량하다<sup>12)</sup>. 마지막으로 질병을 앓고 있는 환자의 情慾의 상태가 促急하면 병의 예후가 불량하고 情慾이 緩安하면 질병의 전변이 느려 질병의 예후는 양호하다<sup>13)</sup>고 인식하였는데 이를 통하여 질병을 관리하는 기준으로 응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 2. 難治性 疾患의 病因

東武公이 難治性 疾患의 病因을 따로 언급한 부분은 없다, 따라서 難治性 疾患의 病因은 東武公이 그의 저서를 통하여 전반적으로 제시한 病因을 정리하는 것을 통하여 알아보겠다.

- 10)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病變之第三統」  
：“久病病症重者 性氣緩傷之病也, 新病病症重者 情慾暴傷之病. 暴傷者則易治而時刻亦急 緩傷者難治而歲月亦延 久病命脈弱者易生 新病命脈弱者難生 如此者何也. 禍生所易故也.”
- 11)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病變之第三統」  
：“身體府潤之被損傷者 一二月內完合甚易, 臟部其液之被損傷者 十數年內完合極難.”
- 12)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病變之第三統」  
：“東醫寶鑑小兒篇曰: 小兒有變蒸之病 勿藥有喜 此變蒸云者即病變也, 小兒完實者無之 虛弱者有之, 病變有自淺而深者 有自重而輕者 此死生之辨也. 大人亦然 不幸得痼病者 雖十分必調理 經歷十餘年病變然後方爲完人.”
- 13)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病變之第三統」  
：“凡人二十前後 血氣方張情慾促之時則內傷命脈退縮於牢獄捷徑也. 牢獄命脈進復於內傷捷徑也. 三十時 血氣與情慾已與 二十時不同也. 四十則 情慾緩安而命脈旺者 猝然不縮退 血氣收斂而命脈弱者 極難進復.”

東武公은 인간을 心身의 양면에서 인식하였다. 따라서 發病의 原因도 心身의 兩面에서 인식하였는데, 우선 心의 측면에서의 病因을 알아보면 心에서는 心氣의 작용이 이루어지는데 여기서의 發病原因은 心氣의 短促에서 오는 心慾으로 인식하였다. 또한 身의 측면에서의 病因을 알아보면 身에서는 知行이 이루어지는데 知行에서 각 체질에 따라 人事의 能·不能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欲心과 放心이 유발되며 이것으로 酒色財權에 빠지게 되면 각 체질의 偏小之臟이 손상되어 疾病이 발생한다고 인식하였다.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에서 病因과 관련하여 제시한 내용을 心身의 兩面에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5. 東武公의 病因觀(1)

		太陽人	少陽人	太陰人	少陰人	
身	安身	人事	點於居處而不點於事務	點於黨與而不點於交遇	點於交遇而不點於黨與	點於事務而不點於居處點
		欲心	忿懼之心 詐於居處	憂患之心 懶於黨與	恐懼之心 侈於交遇	好樂之心 善於事務
	知行(情氣)	人事	能於交遇而不能於黨與	能於事務而不能於居處	能於居處而不能於事務	能於黨與而不能於交遇
		放心	驕於交遇 放縱之過也(怒)	傲於事務 自私之過也(哀)	侮於居處 物欲之過也(樂)	謫於黨與 安逸之過也(喜)
酒色財權	爲人懶怠 必嗜酒食(勤幹)	爲人嬌奢 必耽侈色(簡約)	爲人貪慾 必忿貨財(聞見)	爲人偏急 必擅權能(守戒)		
↓						
偏小之臟을 損傷						
↑						
心	怠慢	怠慢則心氣短促 短促者不壽. 嬌奢減壽 懶怠減壽 偏急減壽 貪慾減壽				
	恭敬	恭敬則心氣長遠 長遠者壽. 人非堯舜 何能仁義禮智事 事盡善, 人非孔孟 何能喜怒哀樂節節必中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에서는 心身에 따른 발병원인을 이상과 같은 방식

이외에도 心에서의 心慾을 減壽要因으로 인식하고, 身에서의 知行은 知行에서 恭敬이 이루어지면 이것이 得壽要因이 되나 知行에서 恭敬이 이루어지지 않고 怠慢하면 질병이 발생된다고 인식하고 이로 인한 질병의 양상을 8가지로 나누어 언급하였는데 이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6 東武公의 病因觀(2)

疲憊虛耗	荒涼之疾(居處)	得壽要因 (知行)
打撲損傷	闌茸之疾(行身)	
積聚內癰	煩懣之疾(用心)	
癲癇狂病	錯亂之疾(事務)	減壽要因 (心慾)
咳嗽喘端	嬌奢之疾	
傷食傷暑	懶怠之疾	
中風	偏急之疾	
眼病鼻塞	貪慾之疾	

### 3. 難治性 疾患의 치료

기존의 證治醫學의 질병치료 원칙은 '扶正祛邪'이다. 따라서 病症의 虛實을 살펴 補瀉法을 결정하는 것이 기존의 주요 치료방식이었으나 東武公은 四象人 體質正氣의 회복을 통한 질병의 예방과 치료를 주요 치료원칙으로 제시하였다. 우선 東武公은 難治性 疾患에서 발병 이후에 치료하는 방식보다는 발병 전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였으며<sup>14)</sup>, 질병의 치료에 있어서도 약물적인 치료를 '武法'으로

14)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病變之第六統』  
: "三軍之行 無慮蕩蕩則敗 有備正則勝 救病千萬以兩言決之 曰莫如預防二字."

인식하고 비약물적인 치료를 '文法'으로 인식하며 이 두가지를 함께 병용하여 치료할 것을 제시하고<sup>15)</sup>. 약물적 치료와 비약물적 치료는 難治性 疾患이 慢性病의 양상을 보이는 경우 일수록 비약물적 치료인 調養의 방식을 강조하였으며<sup>16)</sup> 약물을 사용할 경우도 완만한 약물의 사용을 제시하였다<sup>17)</sup>. 반면 急性病人 경우는 적극적인 약물의 사용을 제시하였으며 약물 치료시의 체질별 구체적인 약물의 응용법과 치료방식도 함께 제시하였는데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7. 약물에 의한 치료

체질	증상과 응용약물	작용
太陽人	八九日大便不通證 當用 獼猴藤五加皮湯	氣液之氣의 固中 촉진 (吸聚之氣의 확보)
太陰人	運氣病五六日 片汗不出則 熊膽不可不用	氣液之氣의 通外 촉진 (呼散之氣의 확보)
	語靜微低而 腦膜阻塞則 瓜蒂不可不用	
少陽人	運氣病二晝夜 大便不通則 甘遂不可不用	水穀之氣의 下降(清腸) (陰滯之氣의 확보)
	丹毒紅粒遍體 煩燥而不寧則 石膏不可不用	
少陰人	運氣病七日內 人中不汗則 桂蔘不可不用 乾澀亂 面色帶青而上下不通則 巴豆不可不用	水穀之氣의 上升(溫裏) (陽緩之氣의 확보)

- 15)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病變之第五統』  
: “少陽成暴衰之傷而有時服淡平潤藥 少陰人或暴喜之傷 有時服淡平溫藥則 文武並用長久之術或者近似也, 若少陽人不戒哀心 少陰人不戒喜心而不服藥則 譬如秦始皇漢光武 窮法殫武財用日耗而四海益亂.”
- 16)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病變之第六統』  
: “凡病人在痼病久病 後悔多 善心發以療病爲第一事件 其他千萬事爲第二事件 如此者命脈雖甚弱庶有回生應之也. 病人在痼病久病 慾心多後悔少 喜人承奉以療爲第二事件 以許多奢侈外慾爲第一事件 如此者命脈雖不堪弱 無回生之望也.”
- 17)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病變之第六統』  
: “痼病久病用藥寧緩也 不可急也. 運氣急病用藥宜早也 不可晚也.”

이상과 같은 약물적 치료와 비약물적 치료를 통하여 偏小之臟의 本常之氣를 편안하게 하여 질병을 치료하고자 하였으며<sup>18)</sup> 질병의 치료에서 臟氣가 主가 되고 藥氣가 客이 되므로<sup>19)</sup> 臟氣와 藥氣를 부합하도록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다<sup>20)</sup>고 인식하였으며 臟氣가 고갈된 경우는 不治의 疾患으로 인식하였다<sup>21)</sup>.

## 結 論

1. 기존의 證治醫學은 補瀉法을 통해 個別 難治病을 치료하려는 疾病觀을 가지고 있는데 반하여, 四象醫學에서는 四象人의 '體質正己' 방법을 통해 모든 難治病을 함께 관리하려는 疾病觀을 가지고 있다.
2. 難治性 疾患은 性氣에 의한 久病(緩病)과 情慾에 의한 新病(暴病)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久病은 壯年期에 好發하여 老人病으로 발전되고, 新病은 少年기에 好發하여 夭折을 하게 되어, 두 병증 모두 牢獄과 危傾을 기치 악화된다고 보았다.
3. 難治性 疾患의 치료는 命脈實數의 強弱과 日限의 遲速에 따라 치료경과의 차이를

- 18)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病變之第六統』  
: “參苓杞菊等藥性淡平 有病可以久服常服而 亦有時間斷以安臟本常之氣.”
- 19)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病變之第六統』  
: “臟氣主也 藥氣客也 臟氣三倍而藥氣一倍則其病即遁也 臟氣二倍而藥氣一倍則藥力易達也 臟氣與藥氣相敵則勝負之數未可知也. 臟氣與藥氣對敵則倒戈之變可立待也.”
- 20)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病變之第六統』  
: “塗壁之客土與主土不成完全則數三月後客土與主土俱落 補臟之藥氣與臟氣不成完全則一半年後藥氣與臟氣俱竭 故峻補輕粉參茸等藥不可屢用 用之者一二年間尤極損身 期于藥氣與臟氣完全 然後保無虞.”
- 21)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病變之第五統』  
: “太陽病以太陽藥投之而病勢益劇有加無減者 臟氣已竭而其病不治 太陰少陽少陰倣此

보이며, 臟氣가 고갈된 경우에는 不治가 된다고 보았다.

4. 四象醫學에서의 難治性 疾患은 치료보다는 예방을 강조하고, 발병한 경우는 調養의 文法과 醫藥의 武法을 병용할 것을 제시하며 牢獄 단계의 難治性 疾患에서는 醫藥(武法)을 爲主로 調養을 次之로 하였으며, 危傾 단계의 難治性 疾患에서는 調養(文法)을 爲主로 醫藥(武法)을 次之로 하여 治療를 한다고 하였다.
5. 따라서 四象醫學에서 難治性 疾患의 治療精神은 邪氣나 病氣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治心正氣'를 통하여 偏小之臟의 體質正氣를 회복하고, 각 개체의 체질적 편차를 극복하려는 '中庸的 調節精神'을 바탕으로 치료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된다.